



스티로폴 어상자 재활용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재사용과 타재질 스티커 사용을 막아야



박 용 규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강동기업 대표

생물(生物)을 주로 취급하는 수산물 유통에 대부분 스티로폴상자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스티로폴상자가 무게가 가볍고, 보냉기능이 뛰어나며 방수성과 위생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수산물시장에서 한번 사용된 스티로폴 상자가 산지로 운반되어 수산물 상자로 재사용되고 있어 수산물의 위생성이 우려되고 있다.

스티로폴 어상자가 재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보다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재사용을 통한 자원의 절약이다. 멸절된 상자를 아깝게 왜 그냥 버리냐는 것이다.

수도권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하루동안 나오는 스티로폴 상자는 8,000 ~ 10,000 개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중 70% 정도는 폐기되면 분리수거, 재활용과정을 거쳐 재생수지로 재활용되어 잘 알려진 대로 사진액자 등으로 만들어져 해외 수출을 통해 외화 획득에 기여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스티로폴 재활용의 활성화로 예전에는 가전완충재 등 깨끗이 사용되고 버려진 페스티로폴에 비해 팔시를 받던 수산물상용 페스티로폴도 요즘은 재생업체에서 서로 확보하려고 경쟁을 하는 통에 처리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30% 정도는 간단한 세척을 거친 후 산지로 운반되어 수산물 포장에 사용되고 있다. 과연 이렇게 재사용되는 상자들은 정말 멸절된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수산물포장에 쓰이는 스티로폴 상자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위생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깨끗이 세척한다해도 상자에 이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이런 위험은 당연히 더욱 커질 것이다. 재사용상자를 취급하는 일부 상인이나 사용업자들은 재사용상자가 그 동안 한번도 위생적 문제를 일으킨 일이 없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우리와 같은 자원의 빈국에서 가능자원의 재사용, 재활용은 필수적이랄 수 있다. 아껴 쓰고 다시 쓰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틀림없이 미덕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그 발생 확률이 확정적이거나 가시적이지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고 경제적 이득만을 생각해 재사용을 부르짖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웰빙시대에 수산물의 위생성과 신선도도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식품의 안전성은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전체 업계가 말도 못할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스티로폴 상자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제도적 장치를 하루바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도록 언제까지나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또한 정부에서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스티로폴 패류상자에 대해서는 어상자 지원금과 스티커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스티커는 스티로폴과 같은 PS재질로 제작 된 것을 부착하도록 해야만 한다. 현재는 PS재질 스티커의 보급이 원활치 않고 타재질 스티커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종이나 비닐코팅지 재질의 스티커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이 또는 비닐코팅지 재질을 사용한 페스티로폴 어상자는 재활용시 작업자가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야 처리가 가능함으로써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PS스티커 사용 확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당국도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안전위생과 재활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